

새로 나온 책

▶ 제주 한시 300수 (심규호·주기평·최석원·송인주 김규태 역주, 김새미오 교정, 김려연 중문 번역)=2022년 제주학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된 제주학연구 '제주 한시 300수'를 정리해 묶은 책. 제주와 관련해 알려진 한시 5000여 수 가운데 대표적인 문인, 시체, 소재를 살펴 305수를 선별했다. 제주의 삶과 현실을 담은 작품을 통해 제주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그루, 3만원.

▶ 제주항 (오경훈 지음)=2005년 퍼냈던 연작 소설집에 세 편을 보태고 군데군데 다듬어 낸 증보판. 반세기 전만 해도 제주 섬은 격랑의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으로 인해 외로이 떨어져 살아가는데 따른 고투를 감내해 왔다. 작가는 그 고투에 얽히고 설킨 역사적 현실의 의미를 바다의 시작이자 끝 지점인 항구를 눈여겨본 뒤 주도면밀하게 탐색했다. 도서출판 각, 1만9000원.

▶ 곤충의 집짓기 (정부희 지음·사진)=정부희 곤충기 가운데 그 6번째 책. 곤충은 인류보다 수억 년 먼저 집을 짓고 살았다. 대를 잇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다. 오직 자기 몸을 돌려 집을 짓는 곤충의 집 짓기를 보고 있으면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 소박함과 정결함에 놀라게 된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태 사진과 쉽고 재미있는 글로 곤충의 집 짓기를 설명한 책. 보리, 5만5000원.

▶ 작고 아름다운 아들의 행복 수업 (자연리 글·그림)=100개의 어린 구름이 아들의 연구실 문을 두드린다. 어린 구름들은 아들이 할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부지런히 받아 적는다. 집에 돌아가면 각자 응원하는 아이에게 들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행복이란 혼자서 만들 수 없으며,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열림원어린이, 1만7000원.

▶ 찾고 싶은 너에게 (제갈인철 지음)=국내 1호 북뮤지션 제갈인철이 청소년들을 위한 인생 조언을 담았다. 그는 이번 책에서 자기만의 진로를 찾아 나서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이 보고 듣고 몸소 겪은 이야기와 삶의 교훈을 건넨다. 10대의 눈높이에 딱 맞는 사례들은 수천 번의 학교 강연을 통해 직접 만난 청소년들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결과다. 학교도서관저널, 1만6800원. 강다혜기자

이 책!

간주여기 『미여지벵디』



제주 자연을 닮은 무덤, 그 안에 녹아든 삶

표제인 '미여지벵디'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시간과 공간으로, 망자가 저승으로 갈 때 거쳐 간다고 여겨지는 곳"을 이르는, 제주의 무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강경호 작가의 설명을 덧붙이면 "제주 사람들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상상 속 시공간(時空間)으로 '미여지벵디'가 있다고 여겨왔"는데 "제주의 곳 본풀이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든 미련과 원한, 괴로움을 미여지벵디의 양상한



강경호 사진집 '미여지벵디'에 수록된 사진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나뭇가지에 걸쳐둔 후에야 나비의 몸이 되어서 훨훨 떠날 수 있다"('작가노트' 중)고 한다. 이승에서의 삶의 시간을 다하고 난 뒤 저승으로 가기 전 다다르는 광막한 들판, 그곳은 죽음을 완성하는 공간이자 삶과 죽음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책 '미여지벵디' (한그루 펴냄)는 그 '미여지벵디' 너른 들판에 펼쳐림, 나무처럼, 바위처럼 놓인 죽은 자들의 집, 무덤을 "경외의 시선"으로 담아낸 강경호 작가의 신작 사진 집이다. 강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제주에서는 삶과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실제로 제주에서 무덤은 마을 가까이에 있다"며 "무덤이라 하면 으레 죽음 또는 무서움을 연상하며 터부시하는 경향과는 사뭇 다르다"고 말한다. 그렇게 "제주의 자연을 닮은, 더불어 산 자와 죽은 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삶", "그 정서를" 담아내고 싶었다고 밝힌다.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자석 등 다섯 부분으로 엮인 책에서 작가가 무덤을 통해 살펴보는 제주인의 생사관과 그에 담긴 제주문화의 가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160여 컷이 수록됐다. 출판사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어둡고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무덤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한다"고 소개했다. 3만원.



제주의 자연을 닮은 무덤에는 죽음 이후에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려 했던 제주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다. - '자연으로 돌아가다' 중 -

“제주4·3,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문집·동화 등 4·3작품 잇따라

제주4·3 76주기를 맞은 올해도 문학계의 추모가 이어진다. 최근엔 4·3 문집과 동화 등 잇따라 출간 소식을 전해와 묶여왔다.

4·3문학회 문집 창간호 '콜아보카' 문학회를 통해 제주4·3의 진실을 찾아가는 서울 지역 사람들의 모임 '4·3문학회'가 올해 4·3 76주기를 맞아 문집 '콜아보카' 창간호를 펴냈다. '콜아보카'는 '말해볼까'라는 뜻의 제주어다. 4·3문학회는 문집을 펴내며 "여기에 실린 글들은 제각기 70여년 전 과거의 바람 한 줄기가 남긴 흔적일 뿐이지만, 그것이 참혹한 기억을 들추어 내거나 잃어버린 어떤 신화를 복구하기보다는 머지않은 미래에 좀 더 분방한 상상력으로 피어날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감히 모아 내놓는다"고 밝혔다.

문집 첫머리에 문학회 회원 이름 명

의 4·3 체험을 풀어놓은 특별기획 '제주4·3과 나'가 놓였다.

회원들의 창작품으로는 제주에 관한 아름답고 슬픈 추억, 4·3의 참혹한 진상과 그 여파를 간직하려는 인간됨을 보여주는 열한 편의 시와 단편동화, 그리고 강요배 화백의 그림을 다룬 에세이가 엮였다.

이밖에 '특별 인터뷰' 형식으로 장편 서사시 '한라산'의 작가 이산하 시인의 근황과 목소리를 전하고, '제주4·3과 사람들' 책선엔 제주4·3희생자 유족 문광호 씨가 들려주는 4·3의 상흔을 에세이 형식으로 기록한 글 등이 묶였다. 아마존의나비, 1만2000원.

#장경선의 '구름 한 조각' "아픔과 상처는 온전히 드러내야 하고, 드러난 그 상처는 제대로 치유해야만 아물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픈 역사를 많이 쓰는 까닭입니다." ('작가의 말' 중)

장경선 작가의 신작 '구름 한 조각'



은 4·3의 아픔을 시에 담은 강중훈 시인의 가족사와 그의 시 '구름 한 조각'에 손을 쥐고 혼자 달렸다'를 모티브로 한 4·3동화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며 마음속에 평화의 숲을 일구기를 바라는 '기억숲 평화바람'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발간됐다.

'구름 한 조각'은 어린 시절 성산일출봉 앞 '터진목' 모래밭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4·3이 한 가족과 어떻게 연결되고 소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소년의 삶과 눈으로 제주4·3을 바라보게 한다. 박승범 그림, 평화롭품은책, 1만1800원.

#윤소희의 '동백꽃, 울다' "역사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

니고 기억을 없앴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가의 말' 중)

윤소희 작가의 '동백꽃, 울다'는 제주4·3 때 제주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겪은 폭력, 고통에 집중해 창작한 역사동화다. 잘 몰랐지만 꼭 알아야 할, 알고 난 후에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근현대사의 10가지 사건을 소개한 '근현대사 100년 동화' 시리즈로 묶였다.

이야기는 왕할망 고길녕과 증손녀 지서현이 함께 살면서부터 비롯된다. 서현이는 왕할망이 그린 그림을 매개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비밀, 왕할망이 평생 마음속 깊이 묻어 둔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다. 배중열 그림, 풀빛, 1만3000원.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전통방식 그대로 맛을 낸~

고사리육개장 제주몹국

제주전통 요리 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HACCP인증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했습니다.

고사리육개장과 제주몹국은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1. 소자본으로 향토음식점을 창업하실 분
2. 메뉴 추가를 고민하시는 식당 사장님
3.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4.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 업체 운영하시는 분

문의처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725-1100